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 추진

남원시, 지방투자기업 초기 인력난 해소 기대 교육생 2개월 교육 기간 동안 월 최대 60만원 지원

남원시가 지자체 최초로 기업 유치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남원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기업투자 유치 정책인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남원 실정에 맞게 기획한 사업으로,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남원에 투자 결정한 기업의 초기 인력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사업 주 내용은 관내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필요인력을 사전에 모집·교육을 실시하고, 공장 준공 시점에 맞춰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

며, 교육생에게 2개월 교육 기간 동안 월 최대 60만원의 교육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은 교육생 채용 시 최대 2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일하기 좋은 기업, 살기 좋은 남원'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으로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채용에 성공한 기업을 방문, 간식을 지원하고, 지난달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과 안전진단 컨설팅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기업에 취업할 숨은 인재 발굴을 위해 TV자막, 버스광고, SNS활동

등 온·오프라인 홍보와 구직자들을 위한 전문 컨설팅과 기업 관계자들이 직접 채용직무를 설명하고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의 기회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미국 조지아주는 경제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도 유치했으며, 우리나라 기업도 유치했으며, 우리나라 기업도 유치했으며, 우리나라 기업도 유치했으며"라며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세계, 입지, 현금 등 현행 인센티브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지방투자 유인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치즈테마파크 SNS 빅 이벤트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진행... 우수 게시물 선정 선물 지급

임실군이 한국의 대표적 관광지로서 국내 관광분야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2023 한국 관광의 별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상으로 한 SNS 인증이벤트를 추진한다.

14일 군에 따르면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의 랜드마크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방문, 좋은 추억을 남기는 SNS 인증 이벤트를 오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관광공사의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 '2024년 여행가는 달' 2~3월 협업 사업으로, 지난 해 임실치즈테마파크의 '2023 한국관광의 별' 지속가능 관광프로그램 부문 선정 기념으로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는 임실치즈테마파크 방문 인증 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여행, #여행가는달)와 함께 업로드한 후 이벤트 페이지(네이버 폼)를 통해 게시물 URL을 제출하여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우수 게시물 50명을 선정하여 4만원 상당의 임실치즈선물세트를 지급하며, 당첨자는 4월 5일 임실군청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 홈페이지 및 임실군청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난 2011년에 처음 문을 연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축구장 28개 넓이의 20만 4천여 제곱미터의 초원 위에 조성되어 있다.

이국적인 경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군은 올해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5월 가정의 달 행사와 7월~8월 아쿠아페스티벌, 10월 임실N 치즈축제, 12월 임실산타축제 등을 준비 중에 있다.

군은 이들 축제들의 성공 개최와 연초부터 다양한 콘텐츠 마련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 민 군수는 "SNS 사진 한 장이 여행의 목적이 되는 만큼 개인 SNS가 현재 관광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며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의 랜드마크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많이 방문하셔서 여행도 즐기고, 사진도 찍으며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비롯해 옥정호와 오수 세계명절테마랜드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통해 천만 관광 임실 시대를 여는 데 더욱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 월동 모기 구제 활동 실시

임실군이 동절기 및 해빙기를 맞아 감염병 매개체인 모기 유충 및 월동 모기 박멸을 위해 오는 4월까지 구제 활동을 실시한다.

동절기인 2월에는 물이 고여 있는 정화조를 중심으로 유충 방제 활동을 하고, 해빙기인 3~4월에는 유충 방제 활동과 더불어 월동 모기에 대한 구제 활동도 병행한다. 군은 현재 공중화장실 5개소와 정화조 8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주민신고 및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유충구제는 유충 사식에 직접 약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서식지 환경에 따라 호흡저해제, 독막이, 화학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하고, 월동 모기 방제에는 경우에 살충제를 희석하여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시행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공영주차장 3개소 유료화

남원시는 장기주차에 따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5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를 유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제26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유료화의 근거를 마련, 오는 4월까지 홍보 안내 및 시운전 점검 기간을 가진 후 2024년 5월 1일부터 유료화(무인카드전용)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소형차 기준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 미만은 무료이고, 1시간 주차 시 기본요금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이 가산된다. 1일 정액요금은 6,000원, 월 주차요금은 6만 원이다. 유료화 전환 대상 공영주차장은 남원시청 제1주차장(218석), 남원시청 제2주차장(258석), 시장 4가 주차장(81석)으로, 해당 주차장은 요금징수를 위한 무인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대규모 야구대회 등 각종 대회 개최

지역경제 활성화 주력

순창군이 '2024년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비롯해 각종 체육대회를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순창군 일원에서 개최함에 따라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14일 군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순창공설운동장 및 팔덕다용도경기장에서 총 4개의 대회가 열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약 3,450명의 선수와 부모, 관계자가 순창을 찾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경기장을 찾는 선수들과 부모, 코치진 등에게 순창의 대표적인 관광지 및 축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경기장 내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은 이러한 현장 홍보를 통해 순창을 찾는 선수와 관계자들이 체육행사를 즐기지만 아니라 순창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다시 찾고 싶은 순



순창군이 '2024년 순창군수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를 비롯해 각종 체육대회를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순창군 일원에서 개최한다. (사진=순창군청 제공)

창, 머물고 싶은 순창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군은 야구를 즐기러 온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하고 순창의 인지도를 높여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이번 체육행사를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각종 축제, 박람회 등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통해 순창의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개별관광객과 단체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순창군은 오는 23일까지 2025년도에 추진할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분야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신청분야는 생산기반

(공로),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 유통, 축산분야, 식품·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임업 9개 분야로 총 195개 사업이며 주요 사업에 미포함된 신규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사업 종사자 등은 신청기한 내 주관부서(농업기술

센터, 산림공원과)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업별 지원 조건과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사업성검토 등 자체심사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심의·의결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치매환자 돌봄 지원사업 큰 호응

인지교육, 안전, 일상생활 지원 등

남원시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며 추진한 치료 영역을 넘어 돌봄 영역까지 지원한 치매 안심마을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 돌봄 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치매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실시한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공모에 선정,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동년 11월과 12월 2달간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개인별 상황 맞춤형 돌봄서비스(인지교육, 안전, 일상생활 지원 등)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왔다.

특히 기존 예방 및 치료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돌봄 영역까지 확장하여 직접 돌봄 제공을 추진한 것은 남원시가 유일하다. 이원화된 보건과 복지를 일원화 관리하면서 치매환자는 공백 없이 더욱더 촘촘한 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서비스 종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사업에 참여하여 돌봄을 직접 제공 하였던 A기관의 돌봄지원사는 "돌봄을 2달 동안 지원하며 처음엔 어르신들에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는데 꾸준히 인지교육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변화되는 모습에 너무 감명받았다" 전했다.

해당 사업은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개인별 맞춤형 돌봄제공으로 대상자 및 가족의 만족도와 지속적인 서비스 요구도가 높아 2024년 남원시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